

# 사원 · 농장 등 불교공동체 세계속에 우뚝

###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개원 50년...8월 9일 기념식 숲 속 '타사자라' 사원, 걸치 농장 프로그램 인기

아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불교 공동체 중에 하나인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San Francisco Zen Center, 이하, 젠 센터)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샌 프란시스코 클로니클(sfgate.com)과 허프포스트(huffingtonpost.com)가 각각 3월 13·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년 전 일본을 떠나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딛은 스즈키 로시(Suzuki Roshi) 스님이 샌 프란시스코에서 소규모 불교 공동체인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를 만든 지 불과 50년 만에,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는 십여 개 프로그램에 수백여 명의 서양 불자들이 참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공동체로 우뚝 섰다.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의 50주년 기념식은 8월 9일 불행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1959년 8월 샌 프란시스코에 가난한 체 구이지만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 일본인 스님이 도착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과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에게 "단지 앉아 있으라(just sitting)"를 가르치며, 벽안의 마음에서 불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3년 후(1962년) 스즈키 로시(Suzuki Roshi)로 잘 알려진 스승 스즈키(Shunryu Suzuki; 1971년 열반) 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8월 9일 일본인 거주지에 있는 작은 사찰에 모여, 젠 센터를 조직했다.

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  
(San Francisco Zen Center)

50년이 지난 지금 젠 센터는 미국의 유명 건축가 줄리아 모건(Julia Morgan)이 1922년 헤이스 밸리(Hayes Valley)에 설계·건축한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를 잡고, 샌 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젠 센터는 도심 속 센터 외에도 타사자라 사원(Tassajara monastery)과 그린 걸치 농장(Green Gulch Farm)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숲 속 사원과 농장은 명상 수행과 방편 수행을 모두 가능하게 하

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곳에는 도심에서 떠나 집중 수행을 희망하는 불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명상 외에도 농사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은 노숙자, 재소자, 마약중독자, 저소득층 병자들에게 직접 건네지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휴가철이면 '젠 글쓰기(Zen writing)', 요리, '달 성숙한 도시의 젠(young urban Zen)', '동성애자 달마(queer Dharma)' 등 도심 불자들에게 친숙한 주제로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 하면 대개 삭발을 하고 법의를 입은 채 산으로 가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젠 센터는 그것 보다는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가장 잘 하는 방편으로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샌 프란시스코 젠 센터 대표) 스님은 "(마음의) 평화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명상)에서 찾을 수 있다"며 "우리가 대중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비와 친절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사자라 사원과 걸치 농장은 카멜 계곡

(Carmel Valley)의 마틴 카운티(Martin County)에 있다. 카멜 계곡은 사원과 농장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인적 드문 곳이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 곳에 예술인 마을이 생기고 박물관이 들어서는 가하면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창업자)와 제리 브라운(Jerry Brown·캘리포니아 주지사)과 같은 유명인들의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젠 센터의 포교 활동에 적잖게 도움을 주었다.

"젠 센터와 그런 걸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라는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사운드 아티스트)은 "8년 전부터 걸치 농장의 '희망의 오두막(Hopcotage)'에서 수행과 노동을 해오고 있는데, 몸과 마음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도심 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젠 센터는 일상에서도 마음의 근원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는 맛과 같다"고 말한다.

젠 센터에서 40년 넘게 '마음공부'를 해 온 로리 앤더슨은 1978년 인간의 신체 일부가 소리의 전달매체가 되는 작품인 '핸드폰 테이블(Handphone Table)'을 발표해 세계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앉아서 하는 수행은 지혜의 등을 밝히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피터 코요테(Peter Coyote) 스님은 "그 힘은 센터, 사원, 농장에서만 아니라, 이곳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교화를 위한 재소자 명상' '노숙자를 생각하는 주방' '채식을 사랑하는 레스

일본 스즈키 스류 스님이 조직

센터 외 카멜계곡 숲 속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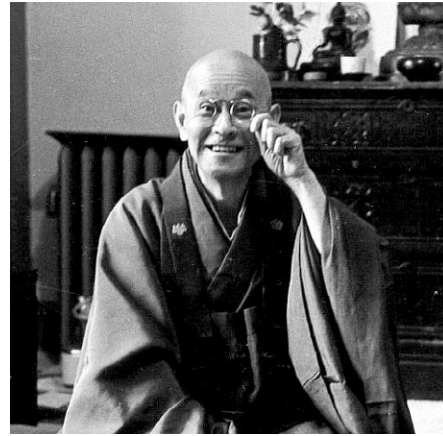
농장 '희망의 오두막' 서 집중수행  
생산농산물 저소득층 돕거나 판매

재소자 명상, 노숙자 주방

젠 글쓰기 등 프로그램 다양

사회공헌 확대·웹 사이트 오픈

"자비와 친절을 잊지 맙시다"



1962년 샌프란시스코 젠센터를 처음 조직한 스즈키 스류 일본 스님

타사자라 사원(Tassajara monastery) 타사자라 사원은 129만4994m<sup>2</sup> 규모로 196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이곳의 생활은 여느 사원과 마찬가지로 수행·요리·식사·청소 등을 함께하는 게 원칙인데, 특징적인 것은 이곳의 첫 수행이 '제빵(빵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원에서는 매년 9월부터(다음해)4월까지,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누구나 사원을 방문해 머물며 수행에 동참할 수 있다.

타사자라 사원에서 출가해 지난 5년간 수행해 왔다"는 노만 피셔(Norman Fischer) 스님은 "스즈키 로시 선사에게 불교를 배우고자 젊은 시절 젠 센터를 찾았고, 2000년부터 그린 걸치 농장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에 근무하며 스즈키 로시 선사의 가르침인 '젠(Zen)에서 논-젠(non-Zen)'을 실천하고 있는 노만 피셔 스님은 "젠 센터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방편으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다른 종교의 경우, 교단에 헌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나"고 반문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수잔 오코넬(Susan O'Connell·젠 센터 부대표) 스님이 이곳을 찾은 것은 1995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법회 모습

년 12월 31일이다. 번잡한 할리우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궁색한' 바람에서다.

"타사자라 사원에 두 달 정도 머물 계획이었는데..."라며 밝은 미소를 보인 수잔 오코넬 스님은 "1999년 이곳에서 출가해 현재 젠 센터 부대표로 봉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수잔 오코넬 스님에 따르면, 사원에는 매일 오전 5시와 오후 5시 마다 2시간씩 명상을 하고 있는 150명 남짓한 수행생들이 있다. 이들은 19세부터 90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한데, 명상 이외의 시간에는 타사자라 사원을 청소하고, 그린 걸치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서로의 일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어요. 이는 자신이 하는 일(수행과 노동)에 어떤 상도 갖게 하지 않는 방편이지요"라고 말하는 수잔 오코넬 스님은 "이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자는 젠 센터의 철학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걸치 농장(Green Gulch Farm)

1971년 문을 연 그린 걸치 농장은 담녹색의 땅 44만5천154m<sup>2</sup>에 경작지를 조성한 수행 및 생활 공동체이다. 농장에는 수행 공간을 비롯해 서점과 찻집 등이 들어선 뮤이어 숲 센터(Muir Woods center)가 있고, 바람 잔잔한 오솔길로 연결된 아담하고 평화로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정원마다 '점으로 형상화된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농장에서 생활하는 수행자들과 불자들은 농사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거래소나 채식 레스토랑 등에 보내져, 젠 센터 기금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곳은 기적의 장소"라고 말하는 에밀라 헬러(Emila Heller)는 이곳에서 40년간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장 일을 하며, 견습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그녀는 농장의 수석 제빵

사인 Mick Sopko)를 소개했다. 8년 전부터 그린 걸치 농장에 거주하며, 매주 400여 개 '덩어리 빵'을 굽고 있다는 그는 "이곳에는 스님도 있고, 스님이 되고자 수련하는 불자도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일상을 떠나 불심을 키우는 불자도 있다"며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선원들이며, 농장은 마치 모선과 같다"고 말했다.

젠 센터의 미래 '예산과 기금'

젠 센터는 매년 500만 달러(56억3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예산의 85%는 센터, 사원, 농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는 보시로 구성된다. 로버트 토마스 스님과 수잔 오코넬 스님은 "젠 센터는 예산 외에도 현재 1700만 달러(약 191억5900만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0만 달러(약 157억7800만원)를 조성했다"고 귀띔했다.

"50주년"의 의미는 젠 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자체"라는 수잔 오코넬 스님은 "5년 내 해변 지역에 '노인 수행 및 생활 공동체(Zen senior living community)'를 만들 것"이라며 "젠 센터는 향후 '수행 호스피스(Zen hospice)' 역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젠 센터는 이미 1980년대 초 '명상을 하는 돌봄(contemplative care) 프로그램'을 시작해, AIDS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젠 센터의 사회공헌 역할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젠 센터는 오는 8월 중 '네 번째 수행처(fourth practice site)'로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젠 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을 담은 비디오 오디오 파일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디오 파일에는 젠 센터를 세운 로시 스님의 저술 <Zen Mind, Beginner's Mind> 등도 게재된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줄리아 모건이 1922년 설계한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잡은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